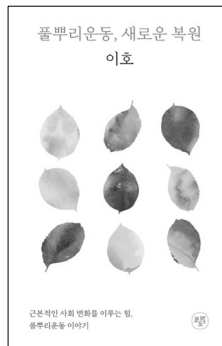


서평

『풀뿌리운동, 새로운 복원』을 읽고 『풀뿌리운동, 새로운 복원』(포도밭출판사, 2017)

강내영*



학회 관계자로부터 이호 저자의 서평을 써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서평’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거절하려 했으나, 저자의 추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부담감보다는 써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 이유는, 20대 중반 지역 운동을 하기 위해 들어간 지역에서 활동가 훈련을 제안 받아서 ‘기초 활동가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받았던 활동가 교육은 내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현재도 삶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의 교육 담당자가 바로 이 책의 저자였고, 그런 연유로 저자가 추천했다는 말에 감히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저자의 책은 사실 풀뿌리운동의 기본서 같은 책이라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lama0@hanmail.net)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풀뿌리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풀뿌리운동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나 주민들과 함께 활동해야 할 공무원들에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사실 이 책은 풀뿌리운동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생활운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풀뿌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영위해 갈 것인지 생각하게 하고 힌트를 주는 책이라 생각한다.

저자의 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1장 ‘풀뿌리운동이란 무엇인가?’에서 저자는 풀뿌리운동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직접 행동·실천이 조직되고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32쪽)라고 얘기하고 있다. 풀뿌리 운동은 시민들의 주체적인 행동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또한, 풀뿌리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이라는 공간인데 저자 역시 지역을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직접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공간”(33쪽)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저자는 실천의 장으로 지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생각은 지구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환경과 빈곤 등의 지구적 공동과제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 실천은 자신이 밭 디디고 있는 공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는 성장 일변도의 세계가 가지고 온 생태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을 들면서 희망적이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풀뿌리활동이 아닌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참여자의 양적 확대와 참여자의 질적 발전이 필요하고 여기에 역량강화와 의식화, 네트워크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55쪽) 이를 풀뿌리 운동의 핵심적 과제이자 가치라 말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에 대해 “결국 네트워크는 풀뿌리운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것이다”(64쪽)라고 강조한다.

2장 ‘풀뿌리운동의 역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동시대의 사건과 사례, 그리고 고민과 경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악주민연대를 설립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빈민지역운동이 주민운동 또는 풀뿌리운동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77쪽)라고 주장한다. 결국 운동의 당사자가 빈민계층, 빈민지역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풀뿌리 운동으로 진화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풀뿌리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과 만나고 있다.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중간지원조직의 확산과 더불어 풀뿌리운동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에 따르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빛과 그림자의 변수는 그 주체인 풀뿌리일 것이다.

저자는 3장인 ‘풀뿌리운동의 원리’에서는 주로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고로 하면 좋을만한 내용들을 실었다. 따라서 풀뿌리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풀뿌리운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3장을 눈여겨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장에서 저자는 세상의 대안적 변화는 결국 자신의 변화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을 포함하는 조직가와 주민 모두가 변해야 할 주체이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자는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우선은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 어떠한 형

태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으리라 본다. 저자는 기본적으로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단체들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면서 개인-단체가 혼합된 네트워크를 바람직한 네트워크로 상정한다(198쪽).

…… 풀뿌리운동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듣던 한 참가자가 ‘풀뿌리운동과 마을운동은 다르다’라고 말한 것이다. …… 그런데 그 운동이 풀뿌리운동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던 시절부터 이를 전형적인 풀뿌리운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입장에서는 더욱 당황스럽다 (219~220쪽).

비단 저자가 지적하는 마을운동과 풀뿌리운동의 구분만이 아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지역재생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일종의 행정보조금이 풀리는 사업명의 차이일 뿐이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 내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실무자가 나에게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람들을 이해시켜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제도의 편의에 따라 해석되어지는 문제는 심각하다.

사실 마지막 5장인 ‘풀뿌리운동의 지향’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나는 제일 궁금했다. 이 장의 첫 타이틀이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인데 결국 우리 전에 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 아닐까 한다. 나의 열망에서부터 출발하여 너의 열망과 만나 서로 합의되는 지점들을 구체화할 때 운동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수다에서 시작하자는 이야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일본의 키타시바 지역에서 마을 활동과 사업을 만들어낼 때 1년 동안 주민들과 수다 모임을

열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활동가들이 주워 담은 사례가 있기도 하다. 그들은 이 활동을 ‘주민들의 증언거림 줍기’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떤 특정 가치가 강조되거나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진정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인상적이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의 사회구조가 경쟁을 바탕으로 한 특정된 삶의 방식만이 정답이라 강조되고 있음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그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호혜적인 관계가 될 때 대안적인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다. 왜 저자가 이 시점에서 다시 풀뿌리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결국 저자가 얘기하듯이 풀뿌리운동에서 중시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내 삶의 방식을 성찰해보고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지역과 사회의 새로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그러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길 바란다.